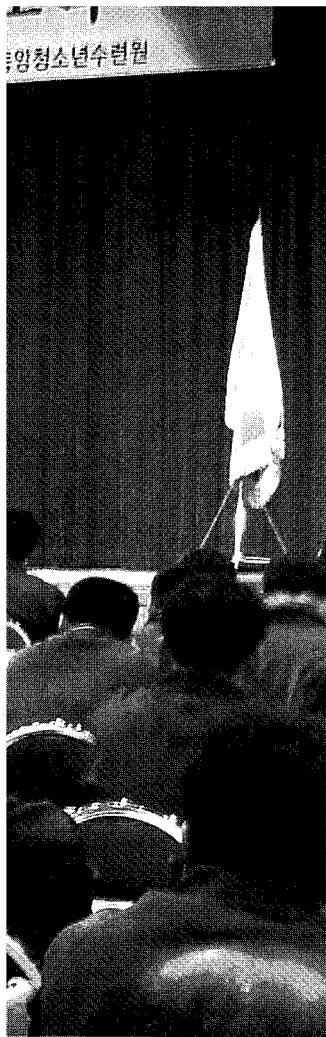




한농연, 2005년 시군회장 교육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하는 '2005년도 한농연 시군회장 교육'이 지난 3월 10일(목) ~ 11일(금) 이틀간 충남 천안에 소재한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됐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비롯해 서정의중앙회장, 각도연합회장, 각시군연합회장 등 총 200여명이 모인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농업문제 전반에 걸친 심도깊은 강의를 청취하고 이를 통해 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나라 농정을 이끌어 갈 선두주자로서의 자세를 다지고 각 시군, 혹은 본인의 한농연 조직과 농업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오전 11시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서정의 중앙회장의 '2005년 농업정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서정의 한농연 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후계인력육성정책과 결합된 한농연 조직역량 강화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농업정책 촉구 ▲자유무역협정과 WTO농업협정 대응 ▲농민조직화와 내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개혁운동 ▲사회적 합의와 농업 내부 통합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강화 등 5대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 첫째 날 일정 들여다보기 - 풀어본 첫날 강의와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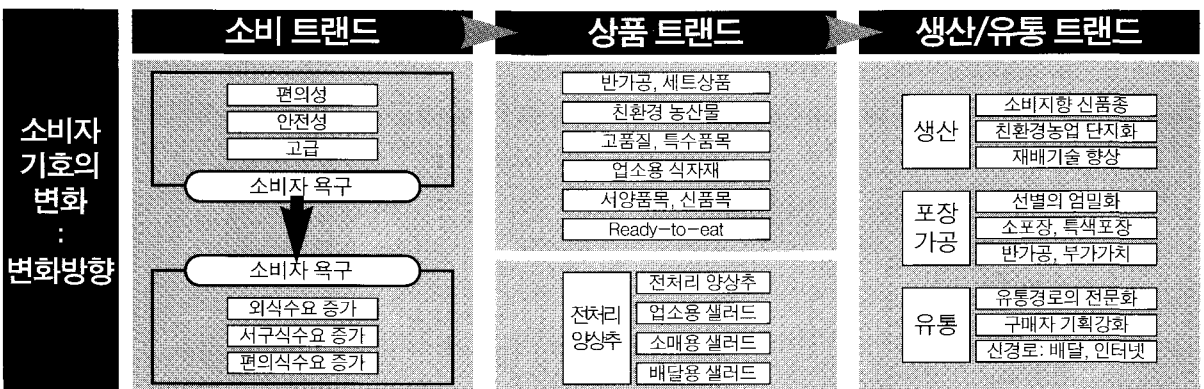
강의 하나 - '2005년 농업정책 대응방안' 서정의 한농연 중앙회장

첫강의로 서정의 한농연중앙회장의 '2005년 농업정책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한농연의 정책기조와 금년도 핵심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 회장의 강연을 통해 한농연의 5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활동과 조직혁신 및 인력육성계획에 따른 한농연 조직역량 강화, DDA, FTA 등 농업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작년엔 통과된 농협법 외에 당초 한농연이 제시한 법 이외의 개정 사항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속의 농업협동조합 개혁'이라는 기치 하에 조합장 선출을 현재 150여명에서 300여명 선으로 늘일 수 있도록 조합장 선거에 적극 대응하는 등 농업협동조합 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가부채 등 농민생존권 확보 투쟁을 전개하고 활발한 대외연대활동 전개의 필요성 증대되는 만큼 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한농연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치권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활동의 필요성과 농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응체계 재확립, 중점 사업 선정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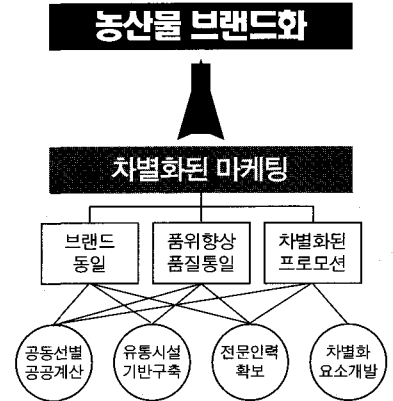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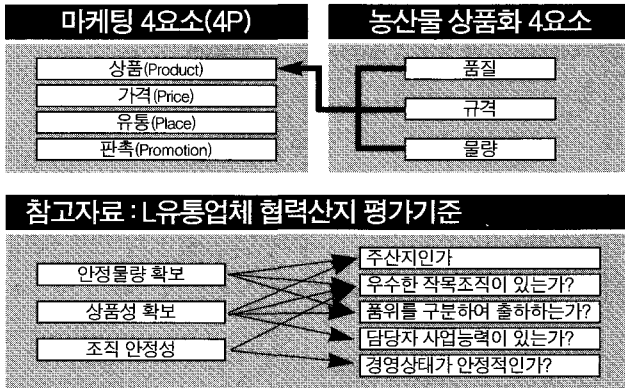
강의 둘 - '농업환경의 변화와 산지의 대응전략' 지역네트워크 박영범 대표.

박영범 대표는 농림부의 정책방향과 농산물 유통환경의 분석을 통한 산지의 대응전략에 대해 강의를 했다.

농산물 유통환경의 분석



**농산물
브랜드화
필요조건**



강의 셋 -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가나안농군학교 전임강사 임임택

자칫 딱딱하게 느끼게 되는 강의를 잠시 뒤로 하고 교양강좌 시간을 준비하였다. 어린 시절 두 눈을 잃고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찾아 부단히 노력한 끝에 독학으로 작곡, 편곡, 조율 등 일반인조차 하기 힘든 일을 해내며, 지금은 많은 기업체들로부터 수많은 강연을 의뢰받고 있는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은 교육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감동을 불어 넣어주었다.

강의 넷 - '2005년 농림부 농업정책 방향' 농림부 구조정책국 장태평 국장

오후 5시부터는 '2005년 농림부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를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의 설명이 있었다. 장태평 국장은 농산물의 1차 생산에서 유통·가공쪽으로 농민들이 영역을 확장한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우리 농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녁식사 이후에는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 즐거운 화합의 밤을 갖고 이후 화합의 자리를 마련,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현안을 상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 둘째날 일정 들여다보기 - 강의부터 수료식까지

강의 다섯 -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및 방법' 농산물품질관리원 김대경 계장

교육 2일차 첫 강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및 방법'에 대해 김대경 농산물품질관리원 계장이 진행하였다.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농산물의 인증제도 및 인증의 효과 등 인증제도의 개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및 방법,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강의 여섯 - '농업인력육성정책방향과 한농연의 역할' 농업정책연구소 이현목 소장

이 소장은 정부의 농업인력육성계획 및 신규인력육성방안과 한농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은 쌀전업농 7만호를 비롯 20만호의 정예농업인력 육성해 생산의 50%이상을 담당토록 하고, 신규 인력후보군에서 연평균 4500명의 후계농을 선발·지원한다. 또한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창업농 지원규모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4%에서 2%로 개선한다. 또한 농대교수, 신지식농업인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후견인과 창업농을 1년간 연결, 관리한다. 경영개선 및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제공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소장은 강연을 통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에서 뒤늦게나마 인력문제에 대응하고자 '정예농업인인력육성종합대책'을 세운 것은 다행이며, 정예인력을 평가하고 선발함에 있어 현장 농민단체인 한농연이 중심역할을 하게 된 것은 "참여농정"을 실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강의 후 중앙임원과 시군연합회장들의 토론 및 평가회 자리를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군회장들은 회원정예화 문제, 농권운동방향, 협동조합 개혁, 한농연 정책기조 등에 대해 질의하고 한농연 중앙임원이 답변하는 응답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후에는 1박 2일의 교육일정을 모두 마친 200여명의 시군회장 들에게 수료증이 증정되었다. **한농연**

시군회장교육 평가



제주시 고봉주 회장

교육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잘 짜여진 듯한 느낌이다. 강의의 주제 설정이 좋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강의에 가나안농군학교 강사의 강연은 참신한 시도였던 것 같다. 정책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함께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어 신선하게 느껴졌다. 교양강좌를 다음 교육에도 추가했으면 한다. 다만 협동조합에서 조합장과 이·감사의 역할 등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된 강의가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1박 2일보다는 2박 3일로 교육기간을 확대해 일년에 한번 있는 교육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상주시 김준봉 회장

1박 2일의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한 교육에 비해 내용이 좋았다.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첫째 날 저녁에 있었던 레크레이션 시간이 기억에 남는데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회원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박영범 대표의 강연에서는 조직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바라는 점은 저녁시간을 이용, 지역별 분임토론을 갖자는 것이다. 지역별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목소리를 맞추는 일 또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시군회장들은 지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인 만큼 그에 걸맞는 토론문화도 중요하다. 리더로서의 토론방법, 토론자세 등과 관련된 교육내용도 추가되었으면 한다.